

[ 사회 ]

# 예고없는 폭우 또 올 수 있다

### 뜨거운 공기 상승 급격히 비구를 형성 쏟아져... 빗나간 예보 불만 폭주

지난 8일 오후 느닷없이 쏟아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광주시 곳곳이 침수됐다. 단 두 시간 동안 내린 비로 200여 가구 이상이 물에 잠기거나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물에 시민이 휩쓸려 숨지는 등 각종 사고도 잇따랐다.

◇시간당 86.5mm, 역대 최대 강수량 = 지난 8일 오후 7시15분부터 2시간 동안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내린 비는 98mm, 이 중 86.5mm가 1시간동안 집중됐다. 이 수치는 지난 1997년 8월4일 기록한 광주지역 시간당 최대 강수량

70.3mm보다 16.2mm나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은 폭우를 기상청은 일반적으로 '소나성 강수'라고 보고 있다. 이날 광주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4.3도, 불발더위에 달궈진 지표면 위에서 공중으로 올라간 수증기가 해발 5천m의 영하 5.5도의 냉기류와 만나면서 급격히 비구름이 형성돼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지난 1998년 지리산 집중호우(시간당 145mm)나 2001년 서울 등 수도권

집중호우(시간당 99.5mm)에 비해 낮은 수치인 하지만 광주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지구온난화와 아열대성 기후대의 영향 등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게릴라성 호우가 앞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 강수량 편차 70mm = 이날 내린 폭우는 주로 광주시 북구와 서구에 집중됐다. 가장 많이 내린 북구 운암동은 98mm로 ▲서구 77mm ▲동구 51.5mm를 기록했다. 그러나 광산구에는 29mm의 비가 내리 북구 운

암동과 무려 70mm 차이가 났다.

기상청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광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면서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부딪혀 집중호우는 물론 국지성 소나기가 내렸다고 보고 있다. 작은 비구름대가 북구와 서구지역에 몰리면서 소나기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피해 속출, 틀린 예보에 불만 폭발 = 이날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비닐하우스 침수, 가로수 파손 등 21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시간당 86.5mm의 폭우가 내린 광주시 북구의 경우 운암동·중흥동 등 주택과 상가 등 104곳이 침수됐으며 가로수와 맨홀도 10여곳이 파손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초 5~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만 집중호우가 100mm 가까이 내리자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시민 하모(여·51·광주시 북구 운암

동)씨는 "곳곳이 침수되는 바람에 건물에서 꼼짝없이 1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며 "갈수록 기상관측이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오는 집중호우 정도는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오늘 천둥·번개 동반 비

11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11일 예상 강수량은 5~50mm,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30~33도로 전날보다 조금 낮겠다.

/강필성기자 kps@

### 8월 11일 (음 7월 11일) 전국날씨

전동·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한 두차례 비	25~32℃
전남	한 두차례 비	24~30℃
전북	한 두차례 비	25~30℃
충청	한 두차례 비	25~31℃
경상	한 두차례 비	23~32℃
강원	한 두차례 비	25~31℃
제주	한 두차례 비	24~31℃
서울	한 두차례 비	23~32℃
부산	한 두차례 비	24~31℃
대구	한 두차례 비	24~32℃
인천	한 두차례 비	24~32℃
대전	한 두차례 비	24~32℃
울릉도	한 두차례 비	24~33℃
독도	한 두차례 비	23~32℃
제주	한 두차례 비	23~29℃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남해동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8:43 썰물 < 03:46  
여수 밀물 < 03:54 썰물 < 10:15

▲해돋이 05:49 ▲해질 19:26 ▲달뜨기 15:33 ▲달지기 00:1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날씨						
최저/최고	25/31	25/33	24/32	24/32	24/32	25/31

## 대법, '시신없는 살인' 이번엔 유죄 확정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지난 3월 다른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훈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20일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이를 뒤 내다버린 혐

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시신이 없어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B씨 혈흔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고 욕실에서 사람의 뼈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숨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행시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함께 적힌 다른 사항들에 의해 특정할 수 있다"며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살인과 사체유기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0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08 전국 외국인 근로자 배구대회'에 참가한 전북 익산팀과 경북 왜관팀이 예선 1차전 경기를 치르고 있다. /위정각기자 jrwi@kwangju.co.kr

## 광복절 63주년 광주서 경축행사 다채

광주에서 제63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의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광주시는 10일 "제63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경축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광복절 전야인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국악공연과 시립합창단·교향악단이 협연하는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경축 전야 음악제'가 범시민축제로 열린다.

광복절인 15일에는 오전 9시 50분 광주공원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시민회관에서 경축식을 갖는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옛 전남도청

앞 '민주의 종각'에서 '민주의 종 타종식'을 통해 광복절과 건국의 의의를 되새긴다.

광주국학원은 '민주의 종 타종식'에 앞서 식전 행사로 참석자들이 대형 태극기에 서명을 하고 만세를 외치는 '태극기 톱(MOB)' 행사와 큰북공연을 개최한다.

시는 이날 하루 모든 시민들에게 시립민속박물관과 우치공원동물원을 무료 개방하고, 애국지사과 유족들에게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료 승차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건국 60년 광주변화상 사진전'이 오는 12~22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광주국학원 주관의 목도 사진 전시회는 오는 15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생활체육 통해 다문화 화합 다졌다

### 광주서 전국 외국인 근로자 배구대회

전국 외국인 근로자 1천명이 광주에 집결했다. 10일 광주에서 열린 '2008 전국 외국인 근로자 배구대회'를 위해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데 모인 것이다.

광주지역 생활체육인들로 구성된 광주시민 서포터즈(단장 문오권) 주관으로 전남대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광주시선수단을 비롯한 목포·장성·익산·정읍·부산·안산·대구·경북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외국인 선수 300여명과 응원단 700여명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배구대회는 전국 외국인 근로자들간 만남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광주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시민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

수준급 실력을 갖춘 이들이었지만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다. 넘어진 상대편 선수를 일으키며 따뜻한 우정을 나눴다. 광주 광동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펜지(37·인도네시아)씨는 "지난해 8월 한국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은 처음"이라며 "스트레스도 풀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과 정보도 교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흐뭇해했다.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 요요코(28·인도네시아)씨는 "고향 친구를 만나 기분이 너무 좋았고 광주시민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았다"고 환박웃음을 지었다.

광주시가 후원하고 광주시민 서포터즈가 주관한 이 배구대회는 올해가 첫 대회이다. 광주시민 서포터즈 문오권(47) 단장은 "사로 문화에 대해 너무 무지해 사소한 일 때문에 공장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았다"며 "공통 관심사인 생활체육을 통해 문화·체육 분야에서 양국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신안서 멸종위기 '애기등' 군락지 발견

신안군 압해도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된 '애기등(공과·사진)' 군락지가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목포·신안지역 야생화 연구회원 등에 따르면 압해면 한 야산에 흰색 꽃을 활짝 터트린 애기등 100여 그루가 자라고 있는 군락지를 확인했다.

목포대 양효식(생물학과) 교수는 "지난 3년간 진도, 완도, 신안 등 특정 도서의 식물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각종 개발 사업으로 사라진 애기등을

좀처럼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압해도에서 애기등이 좋은 군락상태를 유지하며 대규모로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신안군도 최근 자은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애기등 2그루를 확인한 바 있다.

거제도, 진도, 해남 등지의 숲 가장자리에서 드물게 자라는 덩굴나무인 애기등은 저지대에 생육하기 때문에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해 자생지가 훼손되면서 2005년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됐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영호남 대학생 광주·전남 알린다

### 오늘 국토대장정 발대식

영호남 대학생 500명이 '광주·전남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300km 자전거 국토대장정'에 나선다.

전남도는 "11일 도민 만남의 광장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자전거 국토대장정 발대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전남총학생회협의회 주관으로 3박4일 동안 펼쳐질 자전거 국토대장정에는 영호남지역 7개 대학 500여명이 참가한다.

전남도청에서 출발한 호남지역 대학생들은 전남 독립기념관에서 영남지역 대학생들과 합류해 평택, 수원, 안양, 서울, 고양, 일산, 파주(임진각) 300km를 종단할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

# 재혼만 10년!

많은 재혼부부는 수입이 불안하며  
하지만 10년은 생활기간  
생활비를 절약하고 보충비용 보충은  
정확하게 관리해야  
다들 재혼 '재혼부'의 매력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재혼부의 입회 매력입니다.

**영복출발** **재혼부**  
www.remarriage.com

문의: 527-3388  
모여 커를 매니저 직권 구입

# ANYCHE CHAIR

기술과 정제를 바탕으로한 최자 전문 생산업체-유명사 제품  
Anych  
www.anych.com